진각종, 금강원 성역화 불사 '본격화'

회당 대종사 탄생지 치유공간으로 변모 위해

8월 1일 울릉도 금강원서 봉행
명상 · 문화체험장 등 조성 계획
특별 건립 기금 전달식도 열려
"울릉도 대표 문화 공간 될 것"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진각종조 회당 대종사의 탄생 인연을 새롭게 펼치는 금강원의 성역화가 원만히 추진되길 서원하는 불사가 봉행됐다.

진각종(통리원장 도진)은 8월 1일 울릉도 금강원 내 특설무대에서 '금강원 성역화 지진불사'를 봉행했다. 행사는 통리원장 도진 정사, 종의회의장 덕운 정사, 현정원장 능원 정사, 교육원장 효명 정사, 회당학원 이사장 상명 정사 등 종단 스승과 총지종 통리원장 우인 정사, 보문종 총무원장 인구 스님, 총금강회장 정명 각자, 문화체육관광부 김대현 종무실장, 남한권 울릉군수 등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통리원장 도진 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진각성존 회당 대종사 열반 60주년과 회당문화축제 20회가 되는 해를 맞아 명상과 문화를 아우르는 전당 건립을 포함한 금강원성역화불사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새롭게 구축될 공간은 회당문화축제를 처음 시작했던 초발심처럼 울릉군민의 쉼터이자 문화와 복지향상을 지향하는 자리이자, 불교문화와 울릉도 역사전승을 위한 유산으로 자리하는 가운데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새 터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진각종은 8월 1일 울릉도 금강원 내 특설무대에서 '금강원 성역화 지진불사'을 봉행했다.

앞서 성지조성위원장 경일 정사는 강도발원에서 "회당 대종사의 탄생성지에서 현대인들이 명상과 힐링을 쉽게 체험하면서 자신의 삶을 개혁할 수 있는 큰 복전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종단이 뜻을 세우고 종도가 받들어서 이루어지는 금강원 성역화불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부처님과 종조님의 크나큰 은혜에 보답하며 이 땅에 심인불법의 정토가 하루빨리 건설되기를 간절히 서원한다"고 발원했다.

총지종 통리원장 우인 정사는 축사를 통해 "이곳 금강원 성역화를 통해 진각의 출발점이면서도 대종사님의 숨결이 가득한 이곳에서 '대중 속의 불교', '대중과 함께하는 불교'를 강조한 대종사님의 큰 가르침이 다시 널리 퍼져 나가기를 서원한다"며 "지진불사의 인연공덕과 동참대중의 원력으로 헌공불사까지 원만히 회향되어 진각종 정신문화의 요람이자 새로운 교화의 터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발원한다"고 전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도 "울릉군수로서 울릉군에 금강원이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는다. 또한 회당문화축제가 울릉도에 끼친 공헌도 지대하다"며 "금강원 성역화불사가 원만히 성취되고, 회당문화축제의 정신 또한 꾸준히 발전시켜서 울릉도와 금강원이 함께 영원히 빛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금강원 성역화 불사의 원만회향을 서원하는 '특별 기증식'을 통해 총지종 통리원장 우인 정사가 1000만 원, 보문종 총무원장 인구 스님이 500만 원, 울릉도 여래심인당 신교도(금강회장 선정제 보살)들이 600만 원, 회당문화축제 예술감독 스태프미래 이상종 대표가 500만 원의 건립 기금을 전달했다.

한편, 울릉도 금강원은 진기 30(1976)년 제1차 금강원성역화불사를 시작으로 진기 40(1986)년 제2차 성역화불사에 이어 진기 77(2023)년 제3차 성역화불사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서원에 호응하여 거듭 변모의 과정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제3차 울릉도 금강원 성역화 불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울릉도에 시설을 개선해 수려한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명상체험, 불교문화체험, 전통문화체험 및 힐링 공간 조성으로 각종 스트레스로 지친 현대인들을 위한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불사다. 또한 회당 대종사의 탄생지로서 지역인물 선양을 통해 지역 스토리를 전달하는 활동으로 지역민 자긍심 제고와 문화격차 해소의 염원을 담고 있다.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에 머리 맞댄다

8일 대학생전법위 연석회의서
9월 5~6일 워크숍 방향 논의
MZ세대, MBTI 이해 강의 등
세대 공감, 소통 강연 예정돼

대학생 전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불교 사부대중이 머리를 맞대는 워크숍이 열린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MZ세대를 이해하기 위한 전문가의 강연부터 권역별 대학생 포교 방안 논의까지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상월결사(회주 자승)는 8월 8일 동국대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대학생 전법위원회 집행위원회 · 정책기획단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연석회의에서는 9월 5~6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과 마곡사 일원에서 열리는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 워크숍' 계획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발표된 계획안에 따르면 대학생 전법위원회 워크숍은 MZ세대 · MBTI 이해 등 2030세대와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실사구시적인 전문 강의, '왜 대학생 전법인가'를 주제로 한 현재 불교 포교의 현주소와 이웃종교 사례를 분석한 강의가 진행된다.

강연 이후에는 약 400명의 전법위원들이 권역별로 대학생 불자 양성 방안을 논의하는 토크콘서트와 △대불련 지도법사 운영사례 공유 △불자교수, 대학생 소통 △이웃종교 대학생 전도 유형 등을 살피는 토론도 진행된다. 이 같은 토론을 통해 권역별로 '2023 추진 목표 및 계획안'을 발표한 뒤 워크숍은 마무리된다.

이에 앞서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 집행위원회 · 정책기획단은 8월 24일 오전 9시 30분 동국대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예비워크숍도 진행한다. 예비워크숍을 통해서는 취합된 교구별 전법위원들의 의견들을 살피고 세부 워크숍 계획안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 집행위원장 원명 스님은 "워크숍은 대학생 전법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현재 계획안을 교구 대중과 공유해 의견을 보내주면 취합해 더 나은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석회의에서는 각 교구별 지원 대학 선정안과 지원 계획 등이 공유되기도 했다. 금산사의 경우 전북대, 전주교대, 전주대, 원광대 등을 중심으로 전법을 추진한다. 또한 대학생 전법 예산으로 3000만 원을 조성했으며, 이를 통해 대학생 동아리에 매월 50만 원씩 활동비를 지원키로 했다.

봉선사는 권역 내 대학교의 불교 동아리가 전무해 동아리 설립을 장기 목표로 삼았다. 단기적으로는 광릉숲을 이용한 생태체험을 각 대학에게 제안해 대학생들과의 인연을 맺어나갈 계획이다. 선운사는 군산 소재 호원대에 베트남, 태국 유학생들이 많은 것을 감안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전법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청소년이 주인공"…나란다축제 9월 2일 개최

상월선원 안거 · 순례 체험부터
K-댄스 · 전통예술경연대회까지
청소년 진학 · 진로 엑스포 등
학생기획위원단 주체적 계획

상월결사 대작불사 정신이 불교계 최대 청소년 교학축제인 나란다축제로 이어진다.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조계종 포교원과 함께 9월 2일 서울 동국대 일원에서 '제15회 나란다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상월결사의 대작불사들을 서울 동국대에 구현, 청소년과 사부대중이 직접 상월결사 안거와 순례를 체험하는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8월 9일 동국대 로터스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15회 나란다축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나란다축제는 전통문화체험 '내가 K다', 진학 · 진로 엑스포 '꿈의 지도', 전통과 현대의 어울림마당, 학생기획위원단 '내 손으로 빚어낸 꿈' 등 4가지 파트로 구성된다.

'내가 K다'에서는 상월선원 정신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스님들의 청규를 경험할 상월선원 안거체험은 9월 1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서울 동국대에서 열린다. 안거체험은 전통문화의 심도 있는 체험을 통한 상월결사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제 참여 사대부중이 모두 참여하는 상월결사 순례체험 '남산에서 인도를 걷다'는 2일 오전 10~11시 서울 동국대 및 남산 일원에서 개최된다. 묵언과 더불어 남산 일원 문화유적 탐사 및 걷기 순례체험 등으로 진행된다.

이 밖에도 중고등학생들의 진지한 교학연찬을 뽐낼 '불교교리경시대회', 어린이 천진불들의 불교겨루기 '도전! 범종을 울려라', K-명상을 비롯한 전통불교문화를 체험할 '청소년 전통문화 한마당'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 축제에서도 진행되는 진학 · 진로 엑스포 '꿈의지도'는 국내 유일 전국 청소년축제인 나란다축제에 걸맞게 청소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진학 · 진로에 대해 사회저명인사부터 2024년도 대학신입생까지 청소년의 정보갈증을 해갈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연사들을 섭외했다.

청소년들의 끼와 열정이 펼쳐질 전통과 현대의 어울림마당은 나란다축제를 통한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한류문화를 이끌 인재를 찾는 나란다 K-댄스 경연대회와 제15회 나란다축제의 피날레가 돼줄 회향한마당이 구성됐다.

특히 국악을 비롯한 전통예술에 대한 청소년들의 진지함을 엿볼 '전통예술경연대회'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침체돼 있던 전통예술을 다시 중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음악에 대한 역할과 인지도를 제고하고 전통 국악인과 국악 교육자를 양성, 전문 국악 연주자로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축제가 더욱 뜻깊은 이유는 청소년이 직접 기획, 운영하는 축제라는 점이다. 7월 모집한 학생기획위원단은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나란다축제를 청소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행사로 꾸며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통문화를 익히고 리더십을 키워 문화 및 불교를 이끌어갈 인재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집행위원장 성효 스님은 "상월결사의 또 다른 모습으로 나란다 이념이 전승되어 가는 축제로 발전했다"면서 "해가 갈수록 건강한 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동국대 개방이사에 송일호 · 김기유

8월 8일 제350회 이사회서


송일호


김기유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돈관) 개방이사에 송일호 동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김기유 동국대 이사가 선임됐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는 8월 8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제350회 회의를 열고 임기 만료를 앞둔 김기유, 민병덕 이사 후임을 선출했다. 이날 이사회는 9월 15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기유 이사에 대해 재임을 결정했으며, 9월 24일 임기가 만료되는 민병덕 이사의 후임으로는 송일호 동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를 선임했다.

새로 이사로 선임된 송일호 명예교수는 동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텍사스 공과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5년부터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로 교편을 잡았으며, 2021년 정년퇴직했다. 동국대 불자교수회장,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을 역임하는 등 불교계 활동도 꾸준하게 해왔다.

김기유 이사는 동국대에서 학사와 석 · 박사를 취득한 동국인이다. 태광그룹 동림건설 대표이사, 대한화섬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고, 현재 태광그룹 대표이사로 활동 중이다. 신성민 기자

사단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 종도모집

귀의 삼보하옵고
새로운 불교 종지종풍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사)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의 모습을 정립하고자 하는 큰 서원과 상구보리 하화 중생의 책무로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였습니다. 본 종단과 함께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의 종도 스님을 모십니다.

총 무 원 장 연암당 덕평 스님
종 회 의 장 국 담 민호 스님

종도스님 열반시 종단에서 49재 봉행

연락처 : 총무원장 덕평 스님 010-6219-4757 / 이사장 법오 스님 010-2357-7747
주소 : 인천시 남동구 인주대로 888번길35 2동205호